

# 제2455호

2024.01.1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2>** 바토페디 수도원은 4세기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성당을 세웠고, 10세기에 아타나시오스, 니콜라스 안토니오스 세 명의 수도자가 수도원을 설립했다. 총 33개의 성당이 수도원 내외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50권의 사본과 25개의 양피 지 두루마리, 약 30만 장의 문서가 있다. 또한 성모님의 허리띠와 성 그레고리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머리 성해가 모셔져 있다.

### 신현 축일 종례일 시나이와 라이토의 수사순교자들 (제7조 • 조과 복음 10)

### 서 ㅇ하 크리스스토 서차에배

· 6 프린 <u>그리고드</u> 금 '6건'	الحال
• 신현 축일 제2 응송	155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신현 축일 입당송	155
• 신현 축일 찬양송	155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155
• 사도경 : 에페소 4,7~13	· 15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	158
• 성모송 ······	157
• 신현 축일 영성체성혈송	157

• '우리가 참빛' 대신 '신현축일 찬양송'

###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자애롭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초대의 말씀인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물을 마셔라."(요한 7.37)를 우리가 모두 온 마음을 바쳐 받아 들이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왕처럼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 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시편 42,1-2)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때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이 주 시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선물들로 가득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 복수와 용서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사 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극에 열광하는 것은 아마도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아니 그보다 더한 응징을 소재로 한 것이 흥행하고 있다. 법이 있고 인권이 있지만, 우선은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가 아닌가 싶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누군 가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보일 수 있 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수이며 다 른 하나는 용서다.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용서보 다는 복수일 것이다. 인간이 악을 알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복수심은 아마도 용서보다 더 강하 게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복수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복수가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영원한 복수의 사슬로 얽어매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투쟁한다. 용서란 언제나 과거의 일들과 연관된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없다면 고통 속에 과거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간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누 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 지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답하신다. 예 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무한성을 강조한 것이 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복수를 원하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은 나쁜 악마 같은 자이기에 용서보다는 제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와 저주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여기서 용서는 분노를 멈추고 악마 같은 사람을 너그러이 보라는 요구이기에 받아들이기를 힘들게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안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게 된다. 평생을 괴롭히는 원한이나 증오, 복수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의용서이다. 마음의용서는 나를 평화롭게 만들기위함이다, 가해자가용서받을만해서가 아니라미움에서 고통받는 나를 해방시키기위해용서하는 것이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도 불쌍한 마음이들어용서의자비를 베풀 수 있다.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다.

모든 복수의 근원은 개인의 악의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확대되어 국가 간의 극한 대립이 되고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부족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은 몇 명의 위정자들의 복수를 위해, 이유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땀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예언자에게 요구했을 때 왕이 백성을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왕을 세워주기를 고집하였다.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듯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또 배척하였다. 이제는 그를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어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요한 A.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요한 1서 3,18)

○ 좀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설교나 강론을 듣습니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교회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있고, 신문과 잡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정보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신앙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말과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주어야만 하는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주소수이며, 그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비로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 안에서 쉴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 그리스 밧모(Patmos) 섬의 성 사도 요한 수도원 원장이셨던 암필로히오스 성인 (1889-1970)께서도 다음과 같이 비슷한 말씀 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의 말은 페인트를 희 석하는 데 쓰는 신나를 불 속에 집어던지는 것 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이제껏 방치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과 생활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자기 옆의 누군가가 자신들의 아픔을 함께 견디며 아파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매와 형제들을 위한 사랑과 자선의 행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되돌아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원로 수도자는 "오늘날에는 더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더이상 정직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와 교만은 사탄이 던지는 핵폭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행동이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15-17)



####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7일(수) 축일을 맞이하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1월 17일(수)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
- \* 1월 18일(목)

성 아타나시오스, 성 끼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오전 9시: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성당예배는 해당성당에 문의)



#### 소 식

#### Ⅲ 대교구 의회 개최 공고

1월 21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0회 대교구의회'를 개최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례신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안 결의와 발언권은 대교구 정관에 의거, 의회 의원들 에게만 주어집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 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부산 성당, 서울 성당 세례 성사

부산 성모희보 성당에서는 지난 12월 16일(토)에 알렉산 드로스 한의종 신부의 집전으로, 서울 성 막심 성당에서는 1월 5일(금)에 로만 신부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산 성당: 파이시아 오정언, 요한 강지혁

서울 성당: 아우구스티노스 이창섭, 김 디아나-안나,

발레리야 차유미, 김안나





## 참고 견디어 얻는 행복

코프리스 사부는 자주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와 시련을 참고 견뎌내 는 수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언젠가 사부께서 심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형제 수도자들이 그의 놀라운 인내심을 보며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잠시 도 떠난 적이 없었다."